

동서양의 구분을 생각했는데 맥락은 역시 고전, 상류, 근대, 현대 등 같은 편이지만 명칭은

지나지 않게
가져와서
한

생각 할나
정기 대령이
는 내내
서부터 못
알고 있었
뜻깊었던
생각이 들

여 기 는 도 무 지 어 느 나 라 인 지 분 간 수 없 다.

거 기 는 태 고 와 계 승 하 는 판 도 가 있 을 뿐 이 다.

여 기 는 폐 허 다 피 라 밋 드 와 같 은 코 가 있 다.

그 구 념 으 로 는 유 구 한 것 이 드 나 들 고 있 다 공

기 는 퇴 색 되 지 않 는 다. 그 것 은 선 조 가 혹 은

내 전 신 이 호 흡 하 던 바 도 그 것 이 다. 동 공 에 는

창 공 이 의 고 하 여 있 으 니 태 고 의 영 상 의 약 도 다.

여 기 는 아 무 기 억 도 유 언 되 어 있 지 는 않 다. 문 자

가 달 아 없 어 진 석 비 처 럼 문 명 의 「 잡 담 한 것 」

이 귀 를 그 냥 지 나 갈 뿐 이 다. 누 구 는 이 것

이 폐 드 마 스 크 라 고 그 랐 다. 또 누 구 는 폐

드 마 스 크 는 도 적 맞 았 다 고 도 그 랐 다. 주 검

은 서 리 와 같 이 내 려 있 다 플 이 말 러 버 리 듯 이

수 영 은 자 라 지 않 는 채 거 칠 어 갈 뿐 이 다. 그 리

고 천 기 모 양 에 따 라 서 입 은 커 다 란 소 리

로 외 우 친 다 - 수 류 처 럼

이 상, 「 자 화 상, 」

20 21 . 03 . 31 . 수 .

시간의 흐름에 같이 마모되지 않는 '나'를 발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.
이 시의 리차는 시간에 휩쓸려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음.